



뚫았지만 너무 다른 고양이과 동물들

최종욱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업소
수의사/동물컬럼니스트
lovenat@hanmail.net



견원지간(犬猿之間)이란 말이 있는데, 것처럼 고양이와 개 혹은 고양이와 고양이가 마주치게 되면 큰 녀석이 작은 녀석을 쫓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진다. 이것은 서로 운명적인 경쟁상대인 데다가 고양이와 개는 서로 냄새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걸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물들은 보는 것보다 냄새를 훨씬 더 믿는 습성이 있어서다. 만일 마주친 상대가 익숙한 냄새를 가진 반가운 가족이나 친족이라면 서로 몸과 얼굴을 부비 대면서 냄새를 한데 섞으려 난리 일 것이다.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길까?’ 어른이나 어린이나 항상 궁금해 하는 동물 질문 1위이다. 사파리를 운영하는 동물원 사육사들은 사자가 이긴다고들 한다. 결국 사자가 호랑이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세서 그런 건 아니고 사자들은 원래 무리지어 살기 때문에 사파리같이 든든한 동료들이 버티고 있는 곳에서는 무리가 있어도 단독 행동하는 호랑이 한 마리쯤은 가볍게 제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링’ 같은

곳에서 1:1로 싸운다면 서로 승부가 비슷하게 난다고 한다.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실제로 싸움을 시켜본 결과란다. 하지만 야생에서는 호랑이와 사자가 사는 곳이 밀림(또는 산악)과 초원으로, 절대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 싸울 일은 없다. 아니 마주쳐도 서로 피한다.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동물계에선 팩스로마나 같이 모든 것을 지배할 욕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과 동물들은 36종이나 된다. 거기에는 호랑이, 사자를 비롯하여 치타, 재규어, 표범, 샴, 스라소니, 흑표범, 설표 같은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 아파트 주변 길고양이들은 맨 아래쪽 단계에 해당된다.

스라소니 크기 이상만 되도 늘 고양이를 쫓던 개들이 이번엔 죽어라고 달아나야 한다. 고양이과 동물들은 춥고 덥고 습하고 메마른 곳 어디서나 혼자서도 잘 살아간다. 심지어 히말라야 산맥처럼 아주 추운 곳에서도 문제없이 살기 때문에 눈표범이라는 ‘설표’의 발자국을 만나면 등반하는 사람들이 아

주 좋아한다. 왜냐하면 이 표범들이 사냥하러 산에 오르는 날은 분명 날씨가 맑기 때문이다. 집을 나간 고양이들도 쉽게 야생 고양이가 되는 까닭도 이런 고양이들 특유의 독립심과 환경적응력 때문이다. 그래서 옛부터 의리가 있고 의협심이 강한 사람들을 샴이나 시라소니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다. 물론 용감하고 잔인한 측면도 고려한 것이다.

고양이과 동물 중에 '치타'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다. 육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바로 치타다. 하지만 몸무게나 힘은 사자의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아 영양 같은 작은 초식동물들만 사냥한다.

치타는 사냥할 때 목표물이 자기 주변 300m 안까지 들어오길 아주 조용히 풀숲에 엎드려서 기다린다. 그러다 그 사정범 위 안에 목표물이 들어오면 시속 120km 빠른 속도로 먹잇감

을 좋아해서 꼬리를 물에 담구어 물고기를 유인하는 재주를 부리기도 한다. 힘은 퓨마보다 재규어가 훨씬 센 편이다. 사자나 호랑이의 "어흐흥" 하는 울음소리는 온 산이 메아릴 칠 정도로 찌렁찌렁하다. 동물원에 있는 사자나 호랑이도 하루에 두 세 차례 정도 우는 데 가까이서 들으면 마치 심장이 멎을 정도다. 하지만 그 아래 단계의 재규어부터는 이런 큰 울음은 울지 않는다. 다만 "카악 카악"하는 정도의 약한 소리만 낼 뿐이다. 은밀한 사냥꾼 들이라 평소 조용한 것이 습관화 되어있기 때문일까? 하지만 위협할 때는 이빨 사이로 강력한 바람 소리를 내기 때문에 정말로 간담이 서늘해진다. 이런 게 바로 기선 제압이고 약한 동물들은 이 소리만 들어도 그 자리에서 꼬리를 내리고 얼어붙어 버린다.

거의 모든 고양이과 동물들은 야행성이기 때문에 낮에는 물체를 잘 보지 못하고, 색깔도 파란색, 녹색정도만 겨우 구별한다. 하지만 밤에는 완전히 상황이 틀러진다. 이들은 밤에 사람보다 6배 정도 더 잘 본다. 달빛 정도만 있어도 흰한 대 낮처럼 눈에 계속해서 들어온 빛을 반사시켜 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이들의 눈을 야간에 후레쉬로 비추면 반짝거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외부의 빛이 없다면 눈의 반사도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보다 강한 동물들에 대해선 옛날부터 많은 적대감과 외경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런 동물들을 죽이는 일을 자랑으로 삼아 사진도 찍고 장식품으로 벽에 걸어두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전범들을 위해 그나마 몇 마리 남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호랑이나 스라소니, 표범은 완전 멸종을 당했고 겨우 살아남은 삶만 가끔 귀하게 볼 수 있을 정도다.

그럼 그들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가 출몰

하는 산에 올라갈 때 꼭 열사람씩 모여서 올라갔다고 한다. 호랑이 보호지역이 있는 인도에서는 코끼리를 타거나 얼굴 뒤에 무서운 표정을 한 가면을 쓰고 숲에 가기도 한다. 그렇게 하면 호랑이가 먼저 알아서 피한다고 믿는다. 그럼 세상에서 호랑이 승배에 있어 둘째가라면 서러운 우린, 정작 야생에서 호랑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fin~

을 낚아챈다. 만일 미리 눈치 채고 영양이 달아나 버리면 더 이상 쫓지 않는다. 것처럼 빠른 속도로는 오래 달릴 수가 없어서다. 그래서 단거리 선수라고 부른다. 치타는 또한 순해서 어렸을 때부터 데려다 키우면 마치 개나 고양이처럼 길들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옛날 아프리카의 어느 왕은 500마리가 넘는 치타를 길들여 키웠단다. 그들은 사냥꾼이면서 왕을 보호하는 호위병 노릇까지 했다. 기회가 된다면 정말 곁에 두고 싶은 든든한 동물이다. 조금 더 멀리 눈을 돌리면 북미의 록키산맥에는 퓨마가 남미의 아마존 정글에는 재규어가 최고의 포식자로 군림하며 살고 있다. 퓨마는 산속에 살기 때문에 칙칙한 밤색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재규어는 정글에 살아서 화려한 얼룩무늬를 가지고 있다.

퓨마는 사자처럼 물을 싫어하지만 재규어는 호랑이처럼 물

